■ 내달 초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빅4’는 누구? 최대 관심

서울지검장 박영수·문성우 경합 …검사장 7~10명 승진 가능성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가 2월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 중인 검사장 자리는 모두 3곳이지만, 3~5자리가 증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 인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누가되나**=검찰인사에서 흔히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대검 중수부장·대검 공안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4자리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박영수(연수원 10기) 대검중수부장이 우선 거론되나 후배 기수인 문성우(11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발탁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에는 문효남(11기) 의정부 지검장과 이승구(11기) 서울서부지검장이 선두권에 서 있고, 신상규(11기) 창원지검장도 거론되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지역색이 옅은 천성관(12기) 울산지검장과 차동민(1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수민(12기) 법무부 보호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준보(11기) 청주지검장과 이귀남(12기) 대검 공안부장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은**=검사장 자리가 3~5개 증설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7~10명 정도로 예상된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13·14기로 40명 이상이 경쟁하고 있어 경쟁률이 치열하다.

13기 중에서는 각각 호남과 TK 출신인 박철준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춘성 서울동부지검차장, 조한욱 부산 동부지청장, 황교안 성남지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4기 중에서는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이인규 3차장,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 김제식 광주지검 차장·민유태 순천지청장·이중훈 부천지청장 등이 거론된다.

광주지검의 경우 전임 차장 검사였던 박영관·김상봉 검사장이 연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명당’ 자리라는 점에서 김 차장의 검사장 승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토지 불법전용 많다

전남도 허가토지 실태조사 이행위반 158건 적발

전남도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토지 가운데 일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아 투기 우려가 일고 있다.

전남도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토지 6천195건에 대해 목적대로 이행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토지이용계획서상 착수시기가 도달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행위별로는 취득 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임대가 21건,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7건으로 조사됐다.

처분내용별로는 위반행위 158건 중 법률개정(지난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해 이용의무를 불이행한 116건에 대해서는 모두 1억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률개정 이후 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를 불이행한 41건은 이용의무 이행명령 중이며, 허위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1건은 고발됐다.

한편, 올해 1월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2천210㎢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합천군 ‘일해공원’ 추진 반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이 전 전 대통령의 아호인 ‘일해(日海)’를 딴 ‘일해공원’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합천 군민들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규탄집회를 벌였다. /연합뉴스

우수시의원 선정 결국 포기

광주 의정모니터단 “유급인턴보좌관제 강행 등 실망”

광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광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해마다 상례적으로 하는 우수의원 선정을 2006년에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개원 이후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우수의원 선정작업을 계속 해오다가 연말 인턴보좌관제 도입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우수의원 선정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전체 시의회는 문제가 있지만 격려 차원에서 개인 의원에 대한 포상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최근까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수의원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대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모니터단 윤봉란 간사는 “시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도 우수의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으로 몇몇 의원을 거론하기까지 했다”며 “하지만 지난해말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시의회에서 보여준 모습에 실망해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정모니터단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치 21의 김상집 대표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손재홍 의원 등의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등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내홍과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 강행 등으로 우수의원 선정을 할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의원을 따로 선정해온 환경운동연합 정철웅 대표는 “여성분야는 여성단체에서 환경분야는 환경단체에서 우수의원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광주환경시설공단 축산폐수 반입을 폭로한 이상동 의원에 대한 우수의원 선정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6월 이후 개원해 반쪽짜리 의회였다는 점과 인턴보좌관제 도입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시의회 전체의 분위기 때문에 개별 의원에 대한 표창도 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

전남도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세대당 월 5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자는 도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5·18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월 소득액이 3인기준 1가구 전체소득이 월 441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생계비 지급 대상은 5·18 유공자 및 유가족 609세대(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 70%에 해당하는 430여세대가 해당되며 연간 도비 2억 5천 8백만원이 지급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전남도 위성영상 블로그 개통

〈gisblog.jeonnam.go.kr〉

전남의 구석 구석을 발 품 들이지 않고 영상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전남도의 ‘국민참여형 위성영상 블로그 시스템’(http : //gisblog.jeonnam.go.kr)개발사업이 마무리돼 18일 본격 개통됐다. 도는 이날 도청 왕인실(민원동 4층)에서 도내 각계 대표와 도민 등 50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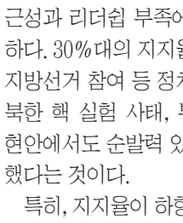
‘국민참여형 위성영상 블로그 시스템’은 국토개발, 관광홍보, 해양생태, 환경, 재난관리 등 전체 행정분야에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을 전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도내 유명 관광지 및 음식점, 행정기관, 업종별 기업체 등 모든 장소와 시설물의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브 로컬, 구글사의 구글어스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블로그 시스템의 우수한 장점만을 모아 개발한 만큼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도는 와이브로와 초고속 무선망, 무선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블로그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고건의 포기, 차라리 잘했다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고건 전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호남 민심은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탔던 그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스러웠지만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에는 크게 뒤지지만 범여권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그가 “평생 죄를 짓고 간다”며 지지자들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대선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정당의 벽이 높아 현실정치의 한계를 느꼈다”는 입장과 함께 “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역량이 부족함을 통감했다”고 대선 불출마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김덕봉, 고재방, 민영삼씨 등 고 전 총리의 핵심 측근들은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며 자기 잇속을 챙기려 들었고 여기에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져 결국 대선 불출마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근성과 리더쉽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3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서도 지난해 5·31 지방선거 참여 등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북한 핵 실험 사태, 부동산 문제 등 정치·사회적 현안에서도 순발력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지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자신이 직접 나서 정계개편을 주도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범여권 후보로 추대해 주기를 바라는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나고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도 무산되자 고 전 총리는 새해 들어 보름 동안의 정국 구상에 들어갔으나 새로운 정치적 비전 제시 등을 통해 과감하게 위기에 맞서는 리더쉽을 보이기보다는 ‘대선 포기’의 길을 택했다.

반 토막 난 지지율을 가지고 멀고 위험한 길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찾은 것이지만 양지를 걸어왔던 엘리트 관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범여권 주자들이 아직 한자릿수 지지율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갖고 있는 고 전 총리의 대선 포기 결정은 정치적 근성 부족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뚜렷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고 전 총리의 대선 포기 결정은 씁쓸하지만 차라리 현명한 결정인지도 모른다.

/tuim@kwangju.co.kr